

2016 미소 강경욱 선생의 7급 서울시 해설

1. 다음 중 외래어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 ① 롱스터(lobster), 시그널(signal), 지그재그(zigzag)
- ② 재즈(jazz), 마니아(mania), 브리지(bridge)
- ③ 보트(boat), 스위치(switch), 인디언(Indian)
- ④ 유니온(union), 톱 클래스(top class), 휘슬(whistle)

답) ②. [난도 하, 외래어 표기] - 예상한 문제 유형

- ① 로브스터/ 랍스터(2016년 1분기 표준국어대사전 수정으로 옳은 표기가 되었다.)
- ③ 스위치, 인디언
- ④ 유니언, 톱 클래스

2. 다음 중 문형이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것은?

- ① 問征夫以前路
- ② 子將安之
- ③ 誰能與我同
- ④ 孰爲好學

답) ①. [난도 상, 한문] - 예상한 문제 유형

問征夫以前路(문정부이전로): 나그네(征夫: 나그네)에게 앞으로 가야 할 길 얼마인지 묻나니. 평서문

- ② 子將安之(자장안지): 당신은 장차 어디로 가시렵니까? 의문문
- ③ 誰能與我同(수능여아동): 그 누가 능히 나와 같을 것인가? 의문문
- ④ 孰爲好學(숙위호학): 누가 배우기를 좋아하는가? 의문문

3. 다음 중 비표준어가 포함된 것은?

- ① 마을 - 마실
- ② 예쁘다 - 이쁘다
- ③ 새초롬하다 - 새치름하다
- ④ 부스스하다 - 부시시하다

답) ④. [난도 하, 표준어] - 예상한 문제 유형

전설모음화가 일어난 것은 발음과 표기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부스스하다' 로만 적어야 한다.

- ① 마을 - 마실(2015년 인정)
- ② 예쁘다 - 이쁘다(2015년 인정)
- ③ 새초롬하다(2011년 인정) - 새치름하다

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평음, 경음, 유기음과 같은 삼중 체계를 보이는 것은 파열음과 마찰음이다.
- ② 한국어의 단모음에는 ㅏ, ㅑ, ㅓ, ㅕ 도 포함된다.
- ③ ㅈ, ㅊ, ㅌ 을 발음할 때에는 파열음의 특성도 확인된다.
- ④ ㅈ 와 ㅊ 에서 확인되는 반모음은 각각 [j](혹은 [y]), [w]이다.

답) ①. [난도 중, 국어의 음운] - 예상한 문제 유형

유기음은 거센소리를 말한다. 우리 음운에서 삼중체계를 보이는 것은 '파열음' 과 '파찰음' 이다.

· 파열음: ㄱ - ㄲ - ㅋ, ㄷ - ㄸ - ㅌ, ㅂ - ㅃ - ㅍ

파찰음: ㅈ - ㅉ - ㅊ

- ② 단모음: ㅏ, ㅑ, ㅓ, ㅕ, ㅡ, ㅣ, ㅗ, ㅛ, ㅜ, ㅠ
- ③ 파열과 마찰의 두 가지 성질을 가진 소리를 우리는 '파찰음' 이라 한다.
- ④ j + a → ㅈ, w + ə → ㅊ

5. <보기>는 「한글맞춤법」 제30항 사이시옷 표기의 일부이다. ㉠, ㉡, ㉢에 들어갈 단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기>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고랫재 꺾밥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뒷머리 아랫마을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도리깃열 뒷웃 ㉢

㉠

㉡

㉢

- ① 못자리 멧나물 두렛일
- ② 쳇바퀴 잇몸 훗일
- ③ 잇자국 뒷마루 나뭇잎
- ④ 사자밥 겹날 예삿일

답) ①. [난도 중, 맞춤법] - 예상한 문제 유형

- ② 훗일(後일)
- ③ 뒷마루(退마루)
- ④ 사자밥(獅子밥), 겹날(契날), 예삿일(例事일)

6. 다음 중 「한글맞춤법」에 맞는 문장은?

- ① 인사말을 쓰느라 밤을 새웠다.
- ②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률이 줄고 있다.
- ③ 생각치도 않은 반응 때문에 적잖이 놀랐다.
- ④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답) ④. [난도 하, 맞춤법] - 예상한 문제 유형

- ① 인사말. [인사말]로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사 이시옷을 표기할 수 없다.
- ② 흡연율. ‘ㄴ’ 뒤에 ‘率’은 ‘율’로 적어야 한다.
- ③ 생각지도. ‘생각하지도’의 준말인데, 어근이 안올림 소리로 끝날 때는 ‘하’를 통째로 생략해 적는다.

7. 다음 중 피동과 사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사에 따라서는 사동사와 피동사의 형태가 같은 경우도 있다.
- ② 사동 접사는 타동사뿐 아니라 자동사나 형용사와도 결합할 수 있다.
- ③ 사동문과 피동문 각각에 대응하는 주동문과 능동문이 없는 경우도 있다.
- ④ 일반적으로 단형 사동은 사동주의 직접 행위는 물론 간접행위도 나타내는데, 장형 사동은 사동주의 직접 행위를 나타낸다.

답) ④. [난도 상, 사동과 피동] - 예상한 문제 유형

사동사의 의한 사동문을 ‘단형 사동문’이라 한다. 그리고 ‘-게 하다’에 의한 사동문을 ‘장형 사동문’이라 한다. 사동의 발생에 주어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개입되는 것을 직접사동이라 하고, 간접적으로 개입되는 것을 간접사동이라 한다. 단형은 직접사동과 간접사동 모두에 쓰일 수 있으나 장형은 간접사동에만 쓰인다.

예) 아버지가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밥을 먹게 했다.

- ① 그에게 먹살을 잡힌 것이 너무 화가 난다.(피동사)
그는 술집에 학생증을 술값으로 잡히고 술을 마시곤 했다.(사동사)
- ② 남다(동사): 남기다
밝다(형용사): 밝히다
- ③ 먼지가 바람에 날리다. (○) / 바람이 먼지를 날다. (×)
사기를 당해 재산을 다 날렸다. (○) / 재산이 날았다. (×)

미소 내공

최근 논문: 지시적 의미론에서는 단형과 장형이 각각 직접사동의 사건과 간접사동의 사건 모두를 지시할 수 있으므로 두 유형의 사동문은 의미 차이가 없다. 그러나 심리주의 의미론에서는 두 유형에 대한 화자의 관념이나 심리영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단형은 실세계에서의 상황과 무관하게 직접사동으로 인식되는 경우에 쓰이고 장형은 간접사동으로 인식되는 경우에 쓰인다는 의미상의 차이를 밝혀낼 수 있다. 그리고 심리세계에서의 그러한 인식의 차이는 단형과 장형이라는 형식적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언어적 거리와 개념적 거리 사이에 일정한 대응 관계가 존재한다는 도상성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8.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품사가 다른 하나는?

- ① 잠이 모자라서 늘 피곤하다.
- ② 사업을 하기에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 ③ 어느새 새벽이 지나고 날이 밝는다.
- ④ 한 마리였던 돼지가 지금은 열 마리로 늘었다.

답) ②. [난도 중, 품사] - 예상한 문제 유형

‘부족하다’는 필요한 양이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뜻의 형용사다.

- ① 동사. 기준이 되는 양이나 정도에 미치지 못하다
- ③ 동사. 밤이 지나고 환해지며 새날이 오다.
- ④ 동사. 수나 분량, 시간 따위가 본디보다 많아지다.

9. 다음 중 중세국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ㄷ’은 ‘뵤’보다는 오래 쓰였지만 16세기 후반에 가서는 거의 사라졌다.
- ② 대략 10세기부터 16세기 말까지의 국어를 말한다.
- ③ 중세국어 전기에 새로운 주격 조사 가 가 사용 폭을 넓혀 갔다.
- ④ 중세국어의 전기에는 원나라의 영향으로 몽골어가 많이 유입되었다.

답) ③. [난도 중, 고전문법] - 예상한 문제 유형

주격조사 ‘가’는 15세기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16세기 중반부터 문헌상에 나타난다.

- ① 뵤: 15세기 중엽인 세조 이후에 사라진다.
ㅏ: 16세기 말엽 임진왜란 이후에 사라진다.
- ② 고려건국부터 임진왜란(16세기 말)까지의 국어를 중세국어라 한다.
- ④ ‘말, 매, 음식’과 관련된 어휘들이 많이 유입된다.

10. 다음 중 국어의 문장성분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

- ㉠ 주어는 성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숫자가 다르다.
 ㉡ 주어, 서술어, 목적어, 부사어는 주성분에 속한다.
 ㉢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의 문장성분은 주어, 부사어, 서술어이다.
 ㉤ 부사어는 관형어나 다른 부사어를 수식하기도 한다.
 ㉥ 체언에 호격조사가 결합된 형태는 독립어에 해당된다.
 ㉦ 문장에서 주어는 생략될 수 있지만 목적어는 생략될 수 없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답) ③. [난도 중, 현대문법] - 예상한 문제 유형

- ㉠ 서술어는 성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숫자가 다르다.
 ㉡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는 주성분에 속한다.
 ㉢ 목적어도 생략될 수 있다.

11. 다음 중 형태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 ① 떠나갔던 배가 돌아왔다.
 ② 머리를 숙여 청하오니.
 ③ 잇따라 불러들였다.
 ④ 아껴 쓰는 사람이 되자.

답) ①. [난도 중, 형태소의 개수] - 예상한 문제 유형

- ① 뜨-어-나-가-았(ㄴ)-더-ㄴ-배-가-돌-아-오-았-다(15개)
 ② 머리-를-숙-이-어-청-하-오니(8개)
 ③ 잇-따르-아-부르-어-들-이-었-다(9개)
 ④ 아끼-어-쓰-는-사람-이-되-자(8개)

12. 다음 중 서술어의 자릿수를 잘못 제시한 것은?

- ① 우정은 마치 보석과도 같단다. → 두 자리 서술어
 ② 나 잊저녁에 시험 공부로 녹초가 됐어. → 두 자리 서술어
 ③ 철수의 생각은 나와는 아주 달라. → 세 자리 서술어
 ④ 원영이가 길가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어. → 세 자리 서술어

답) ③. [난도 하, 서술어의 자릿수] - 예상한 문제 유형
 두 자리 서술어: 철수의 생각은(주어), 나와는(부사어)

13. 다음 중 밑줄 친 부분과 비슷한 의미를 지닌 단어는?

철수와 영수는 고등학교 친구다. 그러나 졸업 후 함께 사업을 하면서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사이가 서먹하게 되었다. 지금도 동네에서 오며 가며 얼굴은 보지만 서로 모르는 척 지나간다.

- ① 징건하다 ② 버름하다
 ③ 투미하다 ④ 쇠락하다

답) ②. [난도 하, 고유어] - 예상한 문제 유형

버름하다: 마음이 서로 맞지 않아 사이가 뜨다.

- ① 먹은 것이 잘 소화되지 아니하여 더부룩하고 그득한 느낌이 있다.
 ③ 어리석고 둔하다.
 ④ 기분이나 몸이 상쾌하고 깨끗하다.

14.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행 도중 틈틈이 수상을 기록하여 문집을 냈다. - 首想
 ② 그가 사주, 관상, 수상에 능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운명은 알지 못했다. - 手象
 ③ 어쩐지 수상하다 했더니 처음부터 범죄 의도가 있던 사람이었다. - 樹狀
 ④ 그는 지원자 중 유일하게 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어 뽑혔다. - 受賞

답) ④. [난도 중, 한자] - 예상한 문제 유형

受賞(수상): 상을 받음.

- ① 隨想(수상): 그때그때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
 ② 手相(수상): 손금이나 손의 모양. 이를 통하여 그 사람의 운수와 길흉을 판단하기도 한다.
 ③ 殊常(수상): 보통과는 달리 이상하여 의심스럽다.

15. 다음 중 <보기>의 글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은?

<보기>

새말 은 바로 ‘新村’이나 ‘新里’, ‘新洞’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새말’이 있다. 특정 마을에서 분파되어 나오면 거기가 새말(새마을)이 되는 셈이다. 새말과 비슷한 또 다른 마을 이름으로 ‘新基’, 혹은 ‘新基村’이 있다. ‘新基’라 적고 ‘새터’라 읽었으며, ‘新基村’이라 적고 ‘새터말’이라 읽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이제는 알 것이다. 서울 지하철(5~8호선) 역명은 이러한 석독(釋讀)의 정신과 관계된다. 성북구 석관동(石串洞)의 ‘돌고지’, 은평구 신사동(新寺洞)의 ‘새절’, 서대문구 아현동(兒峴洞)의 ‘애오개’ 등이 유명하다.

- ① 성육: 漢陽(한양)이라 적고 서울로 읽었을 확률이 높겠군.
 ② 수연: 모래내라는 지명이 많이 보이는데 그것을 석독하면 사천(沙川)이 되겠군.
 ③ 경아: 大田(대전)이라 적고 한발으로 읽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 한발이 바로 석독이군.
 ④ 재화: 광해군 때의 상궁 김개시(金介屎)가 있었는데 그 개시가 바로 개똥이야. 개똥은 음독자로 이해해야 하는군.

답) ③. [난도 중, 읽기] - 예상한 문제 유형

석독의 예를 찾으면 된다. 한자어 ‘大田’을 석독해서 ‘한발’이라 읽은 것이 석독의 예가 된다.

- 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② 사천(沙川)을 석독한 것이 ‘모래내’다.
 ④ 제시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다.

16. 다음 중 비통사적 합성어끼리 묶인 것은?

- ① 소나무, 빛나다, 살코기, 나가다
 ② 접칼, 굽주리다, 부슬비, 검붉다
 ③ 감발, 묵발, 오가다, 새해
 ④ 큰집, 늦더위, 안팎, 출랑새

답) ②. [난도 하, 합성어] - 예상한 문제 유형

접(용언어의 어간) + 칼(명사), 굽(용언의 어간) + 주리다(용언), 부슬(부사) + 비(명사), 검(용언의 어간) + 붉다(용언)

- ① 모두 통사적 합성어: 솔(명사) + 나무(나무), 빛(명사) + 나다(용언), 살(명사) + 고기(명사), 나아(용언의 어간+연결어미) + 가다(용언)
 ③ 통사적 합성어: 새(관형사) + 해(명사)
 비통사적 합성어: 감(용언의 어간) + 발(명사), 묵(용언의 어간) + 발(명사), 오(용언의 어간) + 가다(용언)
 ④ 통사적 합성어: 큰(용언의 관형사형) + 집(명사), 안(명사) + 밖(명사)
 비통사적 합성어: 늦(용언의 어간) + 더위(명사), 출랑(부사) + 새(명사)

17. 다음 중 「표준어 규정」에 맞게 발음한 문장은?

- ① 불법[불법]으로 고가[고까]의 보석을 훔친 도둑들이 고가[고까]도로로 도망치고 있다.
 ② 부정한 사건이 묻히지[무치지] 않도록 날날이[날나치] 밝혀 부패가 끝이[꼬치] 나도록 해야 한다.
 ③ 꽃 위[꼬 뒤]에 있는[인는] 나비를 잡기 위해 나비 날개의 끝을[꼬출] 잡으려고 했다.
 ④ 부자[부 : 자]간에 공동 운영하는 가게에 모자[모자]가 들려 서로 모자[모 : 자]를 선물했다.

답) ①. [난도 하, 표준발음] - 예상한 문제 유형

- ② 고가(高價)[고까]
 ③ 날날이[난나치]
 ④ 부자(父子)[부자], 모자(母子)[모 : 자], 모자(帽子)[모자]

18. 다음 중 혼종어로만 나열된 것은?

혼종-어(混種語)[혼 : -] 「명사」 『언어』

서로 다른 언어에서 유래한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

- ① 각각, 무진장, 유야무야
 ② 과연, 급기야, 막무가내
 ③ 의자, 도대체, 언감생심
 ④ 양파, 고자질, 가지각색

답) ④. [난도 중, 국어의 어휘] - 예상한 문제 유형

양파(洋파), 고자질(告者質), 가지각색(가지各色): 모두 우리말과 한자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혼종어다. 나머지는 모두 한자어 계통의 단어다.

- ① 각각(各各), 무진장(無盡藏), 유야무야(有耶無耶)
 ② 과연(果然), 급기야(及其也), 막무가내(莫無可奈)
 ③ 의자(椅子), 도대체(都大體), 언감생심(焉敢生心)

19.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한자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중독을 떨쳐버리지 않는 게 과연 합리적인 결정일까? 좀더 일반적인 중독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갓 볶아낸 원두를 갈아서 향이 좋은 커피 한 잔을 만들어 마시는 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그런데 가끔 원두가 떨어진 걸 깜빡할 때도 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지 못하면 두통이 생기고, 화가 나고, 집중도 못한다. 커피를 마시지 못하면 금단현상을 느끼는 커피 중독자인 것이다.

- ① 中毒-決定-集中-禁斷
 ② 重毒-決定-執中-錦端
 ③ 中毒-結定-集中-禁斷
 ④ 重毒-結定-執中-錦端

답) ①. [난도 중, 한자] - 예상한 문제 유형

- 중독(中毒): 술이나 마약 따위를 지나치게 복용한 결과,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
 · 결정(決定): 행동이나 태도를 분명하게 정함. 또는 그렇게 정해진 내용.
 · 집중(集中):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부음.
 · 금단(禁斷): 어떤 행위를 못하도록 금함.

20.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현대어 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자식이 能히 밥 먹거든 ㄱㄹ췌되 올흔손으로써 ㅎ게 ㅎ며
能히 말ㅎ거든 스나히느 썰리 ㄷ답ㅎ고 ㄱ집은 느즈기 ㄷ
답게 ㅎ며 스나히 썩는 갓초로 ㅎ고 ㄱ집의 썩는 실로 홀
디니라

- ① ㄱㄹ췌되: 가르치되
- ② 느즈기: 천천히
- ③ 갓초로: 가장자리로
- ④ 홀디니라: 할 것이니라

답) ③. [난도 상, 고어의 풀이] - 예상한 문제 유형

‘갓초로’는 ‘가죽으로’로 해석해야 한다.

“자식이 혼자 밥을 먹게 되면 가르치되 오른손으로 먹게 하며, 말을 할 때는 남자는 빨리(썩썩하게) 대답하고 여자는 천천히(부드럽게) 대답하며, 남자의 띠는 가죽으로 하고 여자의 띠는 실로 할 것이니라.”

<총평>

2013년 시험부터 서울시는 문제를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선택지도 5지 선다형에서 4지형으로 바뀌었다. 문제 공개 전에 출제되었던 황당한 문제는 이제 서울시에서 사라졌다. 그러므로 수험생은 국가직 또는 지방직을 준비하는 동일한 전략으로 서울시 시험을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2016년 서울시 문제 구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국어규범과 관련된 것이 12문항 출제되었다. ‘표준어, 띄어쓰기, 품사, 합성어, 외래어 표기’ 등 우리가 예상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피동과 사동문의 특징을 묻는 문제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사려된다. 어휘는 3문항 출제되었는데, ‘혼종어’라는 생소한 말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조건에 따라 접근했다면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단지 소학언해에서 발췌한 부분의 현대어 풀이는 약간 까다로웠을 수 있다. 읽기영역은 1문항 출제되었는데, 원래 서울시에서는 독해 비중이 적었고 그런 경향이 그대로 반영된 출제였다. 수험생이 정말 어렵게 생각하는 한자는 2문항, 7급 학생들이 더욱더 어렵게 생각하는 한문이 1문항 출제되었다. 특히 한문문장의 성격을 묻는 문제는 까다롭게 여겼을 것이다. 문학이 출제되지 않은 것은 약간은 의외였으며, 서울시만의 특징이라는 할 수 있는 지식국어 영역도 출제되지 않은 것이 눈에 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에서 매년 반드시 출제하는 한자와 한문의 고비를 잘 넘긴 학생은 고득점이 가능한 시험으로 사려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서울시 합격을 원하는 수험생은 자칫 소홀히 할 수 있는 한자는 반드시 정복해야 한다.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말한 방법으로 매일 한자 학습을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문을 잘하는 수험생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기만 한문을 못한다는 태도를 버리고 기본서에 수록된 명문을 자신의 힘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반드시 길러야 한다. 물론 수험생들은 출제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국어규범을 꼼꼼하게 정리해야 하며, 주요 어휘와 지식국어 영역도 평상시에 세밀하게 챙겨두는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

난도에 따라 문제를 구분해 보면, 난도 상 3문항, 난도 중 10문항, 난도 하 7문항으로 분석된다. 공무원 시험에서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이상적 난도로 출제된 것으로 평가된다. 상위권 학생은 85점 이상은 받아야 하고, 실수를 감안하더라도 80점 이상은 받아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으로 생각된다.